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의 둘째 주일 창세기 12 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아브라함의 소명 경험에 대한 복기 시간입니다.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가 진행되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을 겁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은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명 받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1차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버지의 데라가 죽고 이제 또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하란에서 이제 꼭대기 이거거든요.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에 그래서 쪽 내려와서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따르다면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거지만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란도 지역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와 가깝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떠나는 거니까 하란에서 소명 말씀을 들었던 갈대아우르에서 들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화면을 조금 바꿨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하고 실제 진행될 때는 줄인 다음에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좀 더 크게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게 저의 a4 용지에 출력한 설계기법입니다. 빨간색으로 바꾼 그 대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할 내용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죠. 하란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최고 문명권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갈대아 우르를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유적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것도 좀 보여 드렸으면 좋겠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내에서 큰 나라로 패권을 행사하던 나라를 잠깐 생각하느라고 멈칫거렸습니다. 그거를 설교 본문에 초고를 쓸 때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교정하면서 다 뺀 거 같아요. 즉 핵심적으로 두 나라입니다. 아시리아가 있고 바빌론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죠 그리고 바빌로니아 바빌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1년에 혹은 2년에 망했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는 587년 기원전에 망했습니다.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권에서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패권을 행세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고대 근동 역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게 두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바빌론 만하더라도 고대 바빌론 또 중기 또 신바빌론 바빌로니아 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커졌다가 없어졌다가도 다시 나타나고 후대에 어떤 왕이 우리가 이제 바빌론을 재부흥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깃발을 들고 제국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신 바빌로니아 첫째 왕이죠. 그 지역은 당대의 최고의 문명 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그 문명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문명과 종교의 관계라기보다도 인간의 모든 행태가 궁극적으로 종교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문명문화로 많이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그 문명 현상이 그 근본에는 종교성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편하다 편하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 관계된 겁니다. 문명도 결국 인간 구원의 문제인거죠. 문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현대문명도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대형마트와 초유의 도시 백화점을 설교 시간에 예로 들었습니다. 정말 럭셔리한 그 대형마트와 그때 대형 백화점에 들어가면 황홀 하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교회나 성당이 그런 현대의 고도화된 문화현상처럼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경배 찬양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일반 공연장에서 경험하는 거고 비슷한 겁니다. 그 실제 내용은 둘째 치고 그런 분위기가 인간 구원과 관계되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좋다 나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형마트와 초현대식백화점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구경하고 카트에다 담고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에서 보면 종교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크게 도달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본 건데요 5000만원 이상 구매자 그 부자 고객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이 문을 닫아 걸고 500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만 입장시켜서 특별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땐 고급 명품 그런 것들을 좀 비싼 값으로 구매하시겠죠. 그런 일 들이 실제로 벌어지는가 봐요. 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구원 경험인거죠.

근데 그런 멋진 갈대아 우르, 아주 고대 사회에서 그 근동에서는 갈대아 우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화된 문명 도시를 떠나라 하는 말은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를 그대로 따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고도화된 거의 종교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문화 문명 이거를 무조건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본질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겠죠.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장 신자들에게 확 꽂히는 것은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대하게 된다는게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경험은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창대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창대하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본문에 토호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역에서 재정적인,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 가리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지역의 맹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맹주처럼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318명 사병을 거느릴 정도라고 말했어요. 조카 롯이 그 지역의 다른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 명이나 되는 자기 사병이죠. 사적인 병사 개인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문장을 읽으면 곧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318 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역사적 근거가 있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런 이야기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지역에 토호 세력으로 자리 잡는 거로 읽으면 환경 본문에서 액기스는 놓치고 껍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창대하게 라고 하는 말을 머리속에서 지워 버리십시오. 그걸 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써 영혼이 풍성해졌다는 것을 창대하게 됐다는 말로 받아들인다면 옳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거부, 토호, 벼락부자, 지배 세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창대하게 하라는 말을 큰 세력으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야 되겠죠.

앞에서 중간에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혼이 간절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명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뜬금없이 어떤 소리를 듣고서 맞다 나는 저 말씀을 순종해야지 해서 길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영혼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소리를 듣지 못 합니다. 성경의 영웅들 아니면 참된 신앙인들은 다 영혼이 간절했던 사람들인데요. 그게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사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혼이 간절하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일흔 살이 됐어요. 지금 일흔 살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후의 삶은 저에게 또 다른 연극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막입니다. 연극에서는 2막 3장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이 바뀌고 뭐 1장 2장 3장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막이 바뀐 거예요. 이게 아마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막이겠죠. 50대와 60대를 즐겨 보냈습니다.

가족과 같이 그 안식년을 2000년, 1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교회 사표내고 1년 동안 딸 둘 아내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는 목회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그릇도 안 되고요. 신학교 강의 그리고 책 쓰는 거 번역하는 것 이런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차 여차한 목적을 거쳐서 갔다 온 다음에 2년 뒤에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그걸 그게 계기로 돼서, 물론 그 것을 하기 전에 이미 대구성서 아카데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에게도 중요했죠. 아카데미 운동을 하면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설교 공부도 했어요. 일반 평신도 들을 위한 인문학적 성서 읽기도 했구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계기가 돼서 설교 비평을 기독교 사상에 2000년대 초반 2004 년인가 3년 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렇게 50대 2003년 이제 만으로 그 50이니까 그때부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정신없이 책 쓰고 잡지에 글 쓰고 영남신학대학교 강의 나가고 대구대학교도 기독교 사상이라는 과목으로 일반 학생들을 위한 그 교양과목으로 강의를 나가고 두루두루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익사이트한 20년이었습니다. 꼭 찬 20년이라고 해도 되겠죠. 제 어떤 그 신학 내공이나 영적인 내공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발산한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속 안에 있는 내공은 한 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깥으로 쏟아낸 거는 뭐 20, 30 되는 거거든요. 본인에게도 힘든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 내공이 어떤 건지를 수치와 할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50대 60대 그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70이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 영혼이 갈급한거죠. 아직까

지도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한 거죠. 이걸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생명의 근본을 붙들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영혼이 그게 영혼의 문제예요. 그게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건 다른 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아무리 자기 학문적인 업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크게 키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때에만 조금씩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끝이 있지 않아요. 갈 길이 먼 거죠. 그 어떤 우리의 업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전달이 되지요 어떤 뜻인지는요. 근데 이걸 뭐 그럴까봐 보통 뭐 목사들 잘 이렇게 목회 잘하고 존경받고 후학들에게 좀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가까이 간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목회에서 성공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큰 종이다 아 누구는 어떻게 했다 이러쿵 저러쿵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이룬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많으면 그게 좋은 뜻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일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 자체는 아닌 거예요. 참 이상하죠. 출가 수도승에 대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동안 영혼을 갈고 닦아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느냐는 사실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회에 성공한 거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하고 직결이 안 된다니깐요. 이걸 뭐 그렇지 뭐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더 진실하게 열심히 먹게 하라는 말이지 그 업적을 이룬 거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일이지 그럼 뭐 다른 길이 있나 도대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일이 그러한 그 좋게, 목회 목사만 예를 드는 거예요. 목회 잘해서 성공적으로 자기 일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하는 것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더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음악 경험 또 비슷한 겁니다. 음악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하고 음악을 화끈하게 잘 연주해서 인기를 끄는 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뭐 제가 다른 때도 여러분 말씀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왜 똑같은 얘기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거론했잖아요.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본문 첫째 말씀이었구요. 로마서 4장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통적인 거고 믿음의 혈통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문장만 놓고도 또 한 편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혈통적인 정당성 우월성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사실을 그냥 느슨하게만 생각하지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진 않습니다. 계속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신앙을 어떻게 했다 이게 신앙적인 후손 혹은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에는 혈통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짚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게 중요하지 않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지 모세의 율법 그 종교적 교양과 종교적 자기 의가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완전히 종교성으로부터 나온 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유대교의 종교성에서 엑소더스 한 거예요.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출발은 유대교 신앙인데 거기서 뛰쳐나 온 거죠. 유대교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영혼의 간절함 갈급함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소명을 듣는 기본 바탕이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교회 밖에는 현대 지성인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 머리에 남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요. 현대성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더구나 과학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과학적이고 실증적이지 않으면 별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 인과율적인 실증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그 신앙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길든 사람들은 사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아멘으로 받을 겁니다. 이상하게만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용어나 개념을 실제로 모르고 그냥 말만 전하더라도 그냥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축복 하시길 바랍니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뭐 구원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뭐 등등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들리는 용어들을 그냥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그냥 듣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 안 돼요. 혹시 여기에 설교 복기를

듣는 설교자들이 있다면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현대 지성인들도 동의하든지 않든지는 둘째 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 용어와 개념이 담고 있는 실체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는 삶의 본질에 닿아 있어요. 그 이야기만 아니라 성서는 사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읽어도 되는 겁니다. 이걸 컴퓨터 메뉴얼이 아니거든요. 근원적인 것에 대한 경험 이거든요. 그게 삶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높이가 준비가 되는 것만큼 그 내용은 우리들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비유적으로 베르디의 레퀴엠이나 말은 등 그러한 음악들을 반복해서 들어도 그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정작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남아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 까 앞에서 길어졌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세상 일 중요하지 않게 떠나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가운데 떠날 수 없는데 어떻게 떠나라는 거지 옛날에는 도박하지 않고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뭐 그럼 되는 건가 생각합니다. 그건 도덕주의인 거죠. 도덕주의 그거는 굳이 성경과 관계없이 그냥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도승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떠남이라는 건제가 이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로 여러 번 설교했을 텐데 이번에 한 걸음 더 들 어간 이 해석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돈과 친구와 친척과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하던 상태에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돈을 내가 하여튼 무조건 손해 보면 안 돼 내가 붙들고 내가 또 많이 쌓아 놓고 뭐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단계로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니 가능하 다기보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죠. 생명의 근원으로 가 닿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내다보면서 그 과정에서 주어진 친구 돈 건강 이런 두루두루 그런 것 들과의 관계가 새로운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갈길이 먼 거예요. 갈 길이 멀습니다.

조금 그 시적인 표현을 제가 이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 들을 때 좀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충분히 들었는데도 예수 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관계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죠. 그걸 갈 망할 뿐이지 거리가 멀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직 갈 길이 한참이나 남은 어떤

늙은 나그네의 처지와 비슷하다. 한편으로 좀 조급하긴 하지만 아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눈으로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교회도 보고 이런 벌써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론 조급하긴 하지만 이제라도 그러한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걸 더 분명하게 깨달으니까 다행스럽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까지 가 봐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